새정치, 계파정치 청산위해

사무총장·최고위원제 폐지

혁신위 2차 혁신안 제시…'공직자 평가위' 100% 외부인사로 구성

새정치민주연합 김상곤 혁신위원장은 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계파정치 청산을 위해 현행 사무총장 및 최고위원제를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2차 혁신안을 제시했다.

혁신안이 최종 확정되면 최고위원제는 내년 총선 직후 없어지게 돼 지난 2·8 전당대회 때 선출된 문재인 대표 등 현 지도부는 2년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조기에 퇴진하게 된다. 이는 계파 갈등 해소를 위한 극단적 처방이지만 현행 지도체제를 완전히 부정한다는 점에서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이날 제시된 2차 혁신안을 들여다보면 현행 사무총장제가 폐지되며 총무·조직·전략홍보·디지털·민생생활본부장 등 5본부장 체제로 개편된다. 또 각 본부장은 공천기구에서 배제된다.

혁신위는 오는 20일 열리는 중앙위에서 당헌을 개정하고 중앙위 직후에 개최되는 당무위에서 당규 개정을 통해 곧바로 적용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혁신안은 현 지도부가 계파 대리인의 권력 각축장으로 전락했다는 진단에 따라 내년 4월 총선 직후 현 최고위원제를 폐지, 지역·세대·계층·부문별 대표로 구성되는 새로운 지도부로 개편토록 했다.

최고위원의 명칭도 없어지며 당 대표는 현행대로 전대에서 선출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현 지도부는 총선 직후 중도하차하게 된다. 특히 문재인 대표도 최고위원들이 조기 퇴진할 때 함께 물러나는 대상에 포함된다. 최고위원 폐지안의 경우 9월에 열리는 중앙위에서 관련 당헌당규를 개정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1차 혁신안에서 언급된 '선출직공직자 평가위원회' 세부 구성안도 제시됐다.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위원장 포함 15인 이내)를 100% 외부인사로 구성하도록 했다. 평가위원장은 당 대표가 임명하며 평가위원도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대표가 임명한다.

김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사무총장에 집중된 권력은 노골적 권력다툼의 대상이 됐고, 국민은 혐오감으로 이를 지켜봤다"며 "계파 갈등의 상징이 된 사무총장제 폐지를 통해 당무기구는 계파가 아닌 당을 위해 일하는 자율적이고 활성화된 조직으로 변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문재인 대표는 8일 혁신위의 2차 혁신안에 대해 "혁신위가 발표한 혁신안을 존중한다"고 힘을 실었다. 그는 이어 "혁신안 내용에 대해서는 저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다. 걱정되는 부분도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강도 높은 혁신을 해내려면 감수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당내의 분위기는 심상치 않다.

혁신안이 기존의 지도체제를 뒤흔드는 내용이지만 내부의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은 탁상공론의 결과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 구성과 관련, 당 대표가 위원장을 임명한다는 점에서 벌써부터 공정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친노 성향의 위원장이 임명되면 평가위원도 결국 친노 성향 인사들로 채워질 것이라는 지적이다.

호남 모 중진 의원은 "당 내부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없는 인사를 평가위원장이나 평가위원으로 임명할 경우, 잠복해 있던 계파 갈등이 폭발하면서 분당이나 신당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가 8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사퇴 기자회견을 하기 위해 착잡한 표정으로 연단에 서고 있다. /연합뉴스

유승민 낙마 했지만…
'큰 정치' 꿈꿀 계기 마련했다

당권·대권 유력주자 부상도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가 8일 의원총회 결과를 수용하며 사퇴함으로써 정치적 전환기를 맞게 됐다.

우선, '원조 친박(친박근혜)'으로 분류됐던 그는 이제 '비박(비박근혜)'을 넘어 완연한 '반박(반박근혜)' 색채의 대열로 넘어가는 상황에 처했다. 또 외부 압력에 의한 사퇴로 정치적 타격을 입은 듯 보이지만 오히려 정치적 입지는 확고해지는 따라서 보다 '큰 정치'를 꿈꿀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는 분석이다.

유 원내대표는 그동안 당내 일각에선 야당에 번번이 양보한 '무능한 협상가', 고난을 겪지 않은 '온실 속 화초'라는 비판이 나왔고, 특히 청와대와 친박계로부터 '배신자'란 낙인이 찍히기도 했다.

때문에 향후 당 운영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친박계의 입김이 거세질 경우 유 원내대표는 정치적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특히 박 대통령의 확고한 지지 기반인 대구·경북(TK) 출신인 유 원내대표가 박 대통령에 맞서다 낙마한 만큼 향후 TK 여론이 어떻게 형성될지도 미지수다.

그러나 오히려 정치적으로 유·무형의 많은 '보상'을 얻었다는 평가도 나온다.

박 대통령 및 청와대와 대립각을 세움은 물론 당내 최대 실력자인 김무성 대표 및 서청원 최고위원과 달리 소신을 내세우며 차별화된 행보를 보이면서 존재감이 더 부각된 것이다.

더욱이 유 원내대표는 이번 파문을 계기로 자신의 '혁신보수·경제적 개혁주의'라는 정치철학을 국민에게 적극 알릴 수 있는 계기를 얻었다. 이는 집권 후반기를 앞둔 박 대통령에 대한 여론의 평가가 인색해질수록 더욱 가치를 인정받게 될 가능성이 크다. 이런 배경에서 그가 차기 당권이나 대권의 유력 주자 반열에까지 오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큰 정치'를 하기 위한 기반을 닦은 것이다.

어찌 됐든 유 원내대표의 사퇴로 그의 거취를 둘러싼 새누리당 내 논란은 일단락되고 청와대와 친박계는 비박계가 장악했던 지도체제를 흔들어 균열을 일으키는 데 일단 성공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유승민 사태일지

▲ 6.25 박근혜 대통령 '배신의 정치 심판론' 정면 비판.
▲ 6.25 오후 새누리당 의총 유 원내대표 '재신임' 결정.
▲ 6.26 유 원내대표 "진심으로 죄송" 사과. 靑사퇴 촉구.
▲ 6.29 평택 현장 대책회의 김태호 최고 사퇴 공개 촉구.
▲ 7.2 김태호 최고 거듭 사퇴 촉구 김무성 대표 '회의 중단' 선언.
▲ 7.6 국회 본회의 개정안 자동 폐기 처리.
▲ 7.8 오전 9시 의총 사퇴 권고결정, 오후 1시 유 대표 사퇴 발표.

박지원 "이희호 여사 방북때 김정은 위원장 면담 기대"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사진〉 의원은 8일 이희호 여사의 방북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과의 면담 여부와 관련, "가능성도 있고 필요성도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 출연, "김 위원장이 친히 초청한 것인만큼 당연히 예우를 갖춰주리라 생각한다"며 "면담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방북 시기와 관련, "사실 6월을 생각했는데 메르스 때문에 여러 가지가 고려돼서 8월초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본인의 동행 여부에 대해서는 "이 여사께서 함께 가자고 하는데 정부가 허가를 잘 내주길 바라고 있다"고 밝혔다.

야권 안팎의 신당 및 분당론에 대해, "지금 새정치연합이 크건 작건 분당이 되는 건 상수로 보고 있다"며 "지금은 (신당 관련) 움직임이 현실화되고 가시하되기 때문에 피부로 느끼고 있다"고 언급했다.

신당 참여 가능성에 대해서 박 의원은 "아직 그런 생각은 갖고 있지 않다"면서도 "문재인 대표와 김상곤 혁신위원장의 (현 신안이) 변수가 될 수 있다. 문 대표와 김 위원장이 누가 보더라도 혁신다운 혁신을 했을 때 그런 것(신당론·분당론)은 작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

"북, 이희호 여사 방북 무산 경고는 대남 압박용"

양무진 북한대학원 교수 분석

북한이 8일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의 다음달 방북에 대해 무산될 수도 있다고 경고한 것은 실질적인 무산보다는 대남 압박용일 가능성이 크다고 전문가들이 분석했다.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는 이날 대변인 담화를 통해 "괴뢰패당은 이희호 여사의 평양 방문 문제는 잠정 합의됐을 뿐 아직 완전히 확정되지도 못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똑바로 알고 함부로 지껄이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이날 "이희호 여사 방북에 대한 남한 언론이나 정부의 해석과 개입을 사전 차단하면서 언제든지 이것을 철회할 명분도 확보하려는 대남 압박용 메시지"라고 평가했다.

북한이 '최고지도자'의 순수한 뜻으로 이희호 여사를 초청했다는 점을 부각시키면서 남한 언론이나 당국의 정치적 해석이나 절차상 관여에 대해 불만을 표출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근본적으로는 이번 사안을 계기로 북한이 남북관계 전반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출한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남한 길들이기'의 측면도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북한의 이번 입장 발표가 단순한 경고인지, 실제 방북 무산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인지에 대해서는 다소 입장이 엇갈렸지만 향후 방북 협의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에는 이견이 없었다.

양무진 교수는 "방북에 부정적인 신호임은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野, '박근혜법' 국회법 개정안 재발의

새정치민주연합은 8일 박근혜 대통령이 과거 국회의원 때 공동 발의했던 국회법 개정안을 재발의했다.

새정치연합 이윤석 원내수석부대표와 박수현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의안과에 국회의 시행령 수정 요청을 행정부가 받아들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지난 1998년 당시 안상수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박 대통령이 공동 서명한 국회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새정치연합은 박 대통령이 직접 서명했다는 점에서 이 법을 '박근혜법'이라고 부르기로 했으며, 당시 법안을 수정하지 않은 채 다시 제출했다.

이 법안은 이상민 법제사법위원장이 대표 발의했으며 원내대표단 16명이 공동 서명했다.

/박지경기자jkpark@kwangju.co.kr

신축 원룸 매매
전대정문 2분! 후문 2분!
①신축 4층건물(총룸 13개)
②월세 인기좋음 /임대 걱정없음
③1층 점포
④2층~3층 원룸 10개
⑤4층 안집 투룸 1개
월수익 540만 매매가 7억 1천만
①북구 신안동 전대정문 2분 코너 (룸20개) 1층상가2개,룸18개) 월수익 700만 매매가 7억8천
② 용봉동 용봉지구 코너 (엘리베이터있음) 룸20개(1층상가2개,룸18개,주택1개) 매매가11억
③ 북구 용봉동 (토90평,건150평) 월수익 450만 매매가 8억원
④상무지구 수림오피 6층(19평) 월수익 42만 매매가 8천만
⑤ 상무지구 수림오피 6층(23평) 월수익 50만 매매가 9천만
010-6834-4800
010-6832-9700

상가건물매매
〈나주시 삼영동 2층 건물〉
1층 6칸, 2층 2칸
토 205평, 건 135평
나주 영강초교 정문 앞
학원건물 적합
※학원 / 도장 / 분식점 운영적합
월수익 200만 매매가 3억
① 북구 우산동 안보회관 상업지건물 7층사우나건물 월수익 950만 매매가15억
② 수완동 수완지구 4층중3층 85평 월수익 180만 매매가 4억원
③ 상무지구 수림오피 6층(13평) 월수익 33만 매매가 5천만
④ 서구 쌍촌동 대운파크 2층(11평) 월수익 32만 매매가 3천800만
⑤ 상무지구 정연오피 3층(30평) 월수익 70만 매매가 1억2천500만
⑥ 동구 수기동제일오피(45평) 월수익 60만 매매가 1억1천만
⑦ 광양 상아아파트15평 (상가밀집지역) 매매가 4천만
⑧ 상무지구 중흥A.P.T.(33평) 매매가 2억5천500만
010-6832-9700

법원경매 (주)대신경매
수익성 상가 (근린 상가)
1,서구 금호동 7층중7층(토180㎡, 건295㎡)감정가 6억6천→최저가 2억3천
2,광산구 월계동(토42㎡, 건135㎡)감정가 2억→최저가 1억4천(첨단상가)
3,서구 치평동 (토44.77㎡, 건257.71㎡)감정가 6억1천→최저가 4억3천
수익성상가 (근린주택)
1,서구 화정동(토150평, 건276평)감정가 12억→최저가 8억4천
2,담양 남면(토1427평,건1251평)감정가 32억→최저가 7억4천
3,서구 쌍촌동(토63평,건148평)감정가4억9천→최저가 4억9천
수익성 상가 (근린 시설, 통건물)
1,북구 운암동(토66평, 건193평)감정가 7억2천→최저가 7억2천
2,동구 대인동(토780.2㎡, 건1992.57㎡)감정가 24억7천→최저가 14억
3,북구 오치동(토 114평, 건199평)감정가 4억2천→최저가 4억2천
4,순천 4층건물(토205평, 건221평)감정가 4억2천→최저가 3억
공장/모텔/주유소
1,광산구 장덕동(공장)(토474평,건478평)감정가 7억1천5백→최저가 7억1천5백
2,전남 장성 북이면(토 2825평,건614평)감정가 41억→최저가 15억
3,서구 농성동(주유소)(토246평,건273평)감정가 15억7천→최저가 15억7천
4,광산구 쌍암동(숙박시설)(토154평,건419평)감정가 15억→최저가 15억
직원 구함
남,여 직원구합니다
부동산 기획 개발까지 배우실분!!
경매직원 구함, 경매 컨설팅 같이 할 직원 구합니다.
추천 특수물건

1.광산구 쌍암동(근린시설)(토516평,건919평) 1층, 사무실, 소매점, 2층~3층장례식장 4층, 주방, 숙소5층, 기계실 감정가 36억→최저가 36억

2.북구 운암동 (근린시설)(토 160평,건283평) 개발기획추천, 투자적합 (1층/상가, 음식점, 사무실2~3층사우나) 감정가 8억5천→최저가 5억9천7백

3.광산구 신가동(주유소) (토430평, 건170평) 신가병원 북동측 인근, 하남대로변 감정가 15억7천→최저가 11억

4.동구 대인동(근린시설)(토236평,건602평) (은행, 소방서, 우체국)주변상권좋음 (지하,사무실, 1층점포, 2층~4층사무실) 감정가24억7천→최저가14억

5.담양 남면 구산리(교육시설, 펜션) (토1427평, 건1251평) 개발기획추천,투자적합 감정가 32억→최저가 7억4천
010-7384-7800
010-6670-9800

경 매
실전교육반모집
경매! 이제는 대중화시대!
바로 실전 교육듣고
수익창출가능
매주 목요일, 토요일
〈오전반, 오후반〉
경매기본 교육부터 ~ 실전까지
(입찰, 매매, 임대, 개발기획까지)
→ 노후대비 적합
경매특수물건추천
①남구 노대동 6층중 2층(근린상가)(토31평,건84평) 아파트입구, 도로접 교통조건 좋음 감정가 5억 →최저가 3억5천
②서구 쌍촌동(원룸) (토208평,건490평) 총4층 유촌초교 부근 감정가 4억8천 →최저가 4억8천
③서구 금호 7층중7층상가(근린상가)(토 55평,건90평) 감정가 6억6천 →최저가 2억3천
062-382-5500
010-6832-9700